

#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체국금융 IT 전략

이 용 수\*

금융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업종을 넘어 금융, 유통, 통신업종의 페이 서비스가 경쟁하는 등 변화가 예견되고 금융지주회사들은 올해 핀테크 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육성하는 등 다양한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언한 후 전세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이 우리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우체국금융은 그간의 우체국 창구 중심에서 현재 스마트 बैं킹 등 모바일, 온라인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가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체크카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등의 증가에 따라 민간 수준의 24×365 무중단 및 안정성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ICT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민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금융은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관련 ICT 기술 동향 및 적용사례, 우체국금융의 내부 환경 분석, 시중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례, 우체국금융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I. 금융 관련 ICT 기술 동향 및 적용사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특히 금융 ICT 관련 신기술 동향은 [그림 1]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체인식 기반 인증으로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의 신체 고유한 특성이나 행위특성을 파악하는 기술로 장점은 유니크(Unique)와 복제 불가능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신한은행에서는 손바닥 정맥의 1차 인증, 우리은행의 홍채 인증을 통한 자동화 기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 yongsoo@kisdi.re.kr

적용, KEB하나은행 및 NH농협은 스마트 폰 지문 인증을 하고 있다. 둘째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로 로보(Robo)와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객관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KEB하나/우리/KB국민은행에서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투자성과 검증시스템으로 특히 출원하고 있다. 셋째는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이용으로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거래 내역을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방식으로 저장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로서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외환 송금시스템 개발에, KB국민은행은 코인플러그와 외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KEB하나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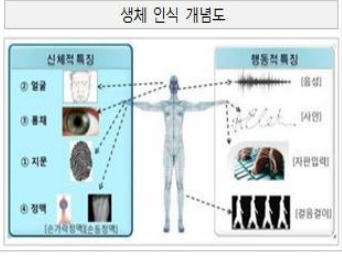
넷째는 비즈니스 HUB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 복합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별 맞춤화된 오픈링을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IBK기업은행은 Post 차세대 Biz HUB구축에 우리은행은 계정계와 독립된 마케팅/세일즈 플랫폼 구축에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과 신규 고객 발굴 및 타겟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대량의 로그 데이터 분석 후 미지의 악성코드 보안 강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고객 이탈 예측 모델 및 새로운 여신 고객 발굴에 활용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SNS 데이터로 고객감성 분석 후 마케팅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현대해상은 사기범죄 적발 및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는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을 통한 ICT 인프라 효율화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코스콤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 적용, KB국민은행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금융 사업 강화, 신한은행은 사내문서 및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적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금융 트렌드 기술 적용을 통해 사용자들의 시스템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금융 관련 ICT 기술 발전 동향<sup>1)</sup>


### 생체인식 기반 인증

- 신체 고유한 특성이나 행위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
- 장점 - "유니크(Unique)와 "복제불가능"
- 타 금융 적용사례  
신한은행 - '손바닥 정맥' 1차 인증 적용  
우리은행 - '홍채 인증' 자동화 기기 운영  
KEB하나은행 및 NH농협 - 스마트폰 '지문 인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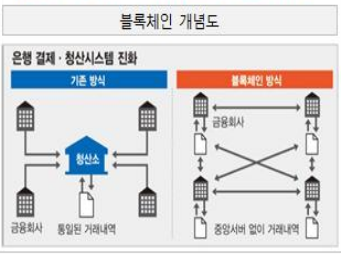
###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로보(Robo)와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
- 장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객관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 타 금융 적용사례  
KEB하나/우리/KB국민은행 -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  
삼성증권 - 투자성과 검증 시스템 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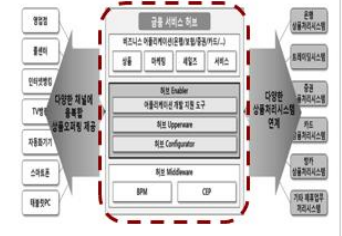
###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이용

-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거래 내역을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방식으로 저장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하는 기술
- 장점 -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로써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
- 타 금융 적용사례  
신한은행 - 외환 송금시스템 개발  
KB국민은행 - '코인플러그'와 외환 비즈니스 모델 개발  
KEB하나은행 -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 비즈니스 HUB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복합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별 맞춤형 오픈링을 제안하는 시스템
- 타 금융 적용사례  
IBK은행 - Post 차세대 Biz HUB 구축  
우리은행 - 계정계와는 독립된 마케팅/세일즈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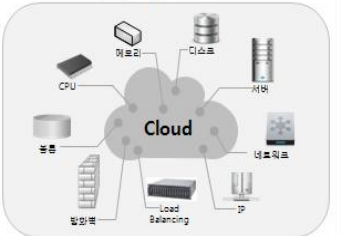
###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과 신규고객 발굴 및 타겟 마케팅에 빅데이터 활용
- 타 금융권 적용사례  
KEB하나은행 - 대량의 로그 데이터 분석 후 미지의 약성코드 보안 강화에 활용  
농협은행 - '고객의 이탈 예측 모델' 및 '새로운 여신 고객 발굴'에 활용  
IBK - 'SNS 데이터로 고객감성분석' 후 마케팅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  
현대해상 - 사기범죄 적발 및 예방에 활용



###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을 통한 IT 인프라 효율화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예정(2016년9월) - 클라우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민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이 시작되고 있음
- 타 금융권 적용사례  
코스콤 - 전자정부 클라우드 표준플랫폼 선도 적용  
KB국민카드 -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금융 사업 강화  
신한은행 - 사내문서 및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사용



1) 금융기관 적용사례는 참고문헌의 발표 시기와 본 원고의 작성 시기 차이로 인해 현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타 금융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ICT 방향성은 [그림 2]와 같이 비대면 채널 대응 능력 강화, 개인 맞춤화 기반 마케팅/세일즈 강화,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확보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금융회사의 미래 ICT 방향



즉 비대면 채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고 믿고 이용 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인화 기반 마케팅 /세일즈 강화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조립이 가능한 개인 맞춤 서비스 환경 마련과 타겟 고객 영업 강화를 위한 기능과 실시간 분석 데이터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역량 확보는 금융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구조 수립, ICT 효율성 확보 및 확장에 대비한 표준화, 신기술 기반 서비

스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핵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심각한 리스크로 간주되는 고객정보 보호와 규제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회계기준의 선진화 등과 같은 금융 규제 강화 대응,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복잡성 증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 II. 우체국금융의 내부환경 분석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우체국금융은 [그림 3]과 같이 정책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을 위한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책적 환경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공적 금융회사 및 서민 금융회사의 역할과 민간금융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우체국의 위상 반영이 필요하고 IC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그림 3) 우체국금융의 환경 변화



제공에 우체국금융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정부의 법 및 금융제도 변화로 금융회사 간의 서비스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대응 요구 등이 있다. 경제적 환경은 세계 경제 부진, 각국의 재정/금리정책으로 대외 리스크 증가,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저금리가 지속되어 은행/보험의 수익성 악화, 비정규직 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청년실업 증가 및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원화 강세,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액/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금융시장이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여 고객의 다양한 특성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및 대응 체계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와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금융회사 간의 경쟁 심화, 금융지식의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소외자를 포용 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금융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인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창조 경제, 창조 금융 추진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체국금융이 어떻게 정부정책에 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정부 3.0과의 연계를 보면 우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를 통해 투명 정부를 이루고, 정부 내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이루어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과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정부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로 창조 경제 추진으로 다양한 개인,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 소통하면서 창의적 자산을 창출하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창의적 자산이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는 창조 금융추진으로 창업/회수/재도전이 가능한 금융환경으로 창업지원에 대한 혁신 및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금융 역할 재구성과 창업/기술 기업 및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한류 전략 추진 및 자본 시장 제도 선진화와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지원을 통해 금융 한류 확산을 실천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은 모바일 간편결제, 경조금 배달 외에 우체국



에서만 제공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체국 특화 창의적 서비스 구현을 이루고,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와의 제휴 확대로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추구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상생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우체국금융을 통해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한 창조 서비스 발굴 기회를 도모해 핀테크 기반의 금융 ICT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은 [그림 4]와 같이 몇 가지 당면한 주요 이슈가 있다. 우선은 취약한 수익구조로 예금의 저축성/요구불 예금 상품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보험은 보장금액 4,000만원으로 제한된 시장으로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예금 및 보험 모두 대부분의 수익이 자금운용 관련 수익에 집중되어 있다. 신규고객 확보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고객은 강력한 이유가 없으면 거래하던 은행/보험을 바꾸지 않으며 비대면 채널의 증가로 인해 고객 접촉이 제한적이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신규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그림 4) 우체국금융의 당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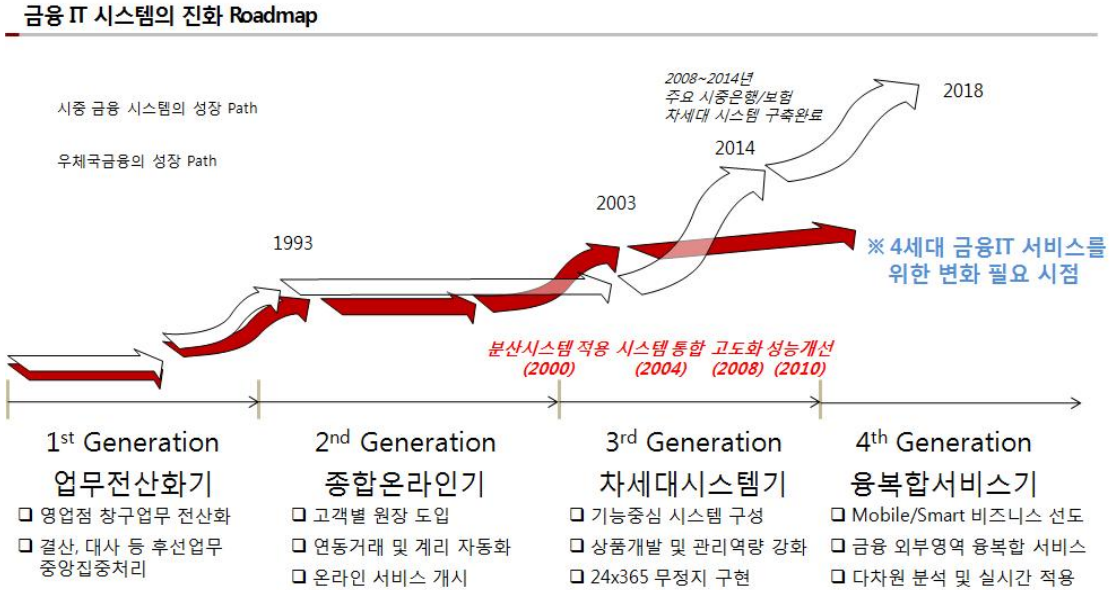
기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및 민간 보험의 45% 수준의 계약금액의 소액 보험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50대 이상이 주 고객층이며 주 경제활동 세대인 20~40세대에 인지도는 떨어지는 열악한 고객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케팅 채널 부족 측면에서 취급 상품의 제한으로 고객 맞춤 상품/서비스의 제한인데 예금은 여신, 신용카드, 펀드 및 신탁 등 취급상품군 제약이 있으며 보험은 실적 배당형 보험, 신용대출, 신탁 등 취급상품군의 제약을 받고 있어 주 고객층인 서민의 자산형성 상품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우체국금융의 ICT 구조 진단 결과, 계정계의 유연성 수준 미흡, 시스템의 통합 수준 미흡, 비대면 채널 대응 역량 취약 등과 같은 것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계정계 유연성 수준의 미흡은 현재 계정계 자체가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00년 창구 중심 모델로 구축된 이후 장기간 유지보수의 결과로 과도한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와 데이터 모델 유연성 미흡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전체적인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다. 또한 대내·외 인터페이스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시스템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장애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예금/보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스템 통합 수준 미흡으로 서로 다른 SI 사업자가 부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표준화나 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사 관점에서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축/운영 단계까지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는 비대면 채널 대응 취약으로 비대면 채널을 담당하는 전자금융 영역의 기반 구조 및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고 계정계와 채널간 연계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지연하게 되고 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적시 제공 미흡과 비대면 채널 마케팅/세일즈 활동을 저해 할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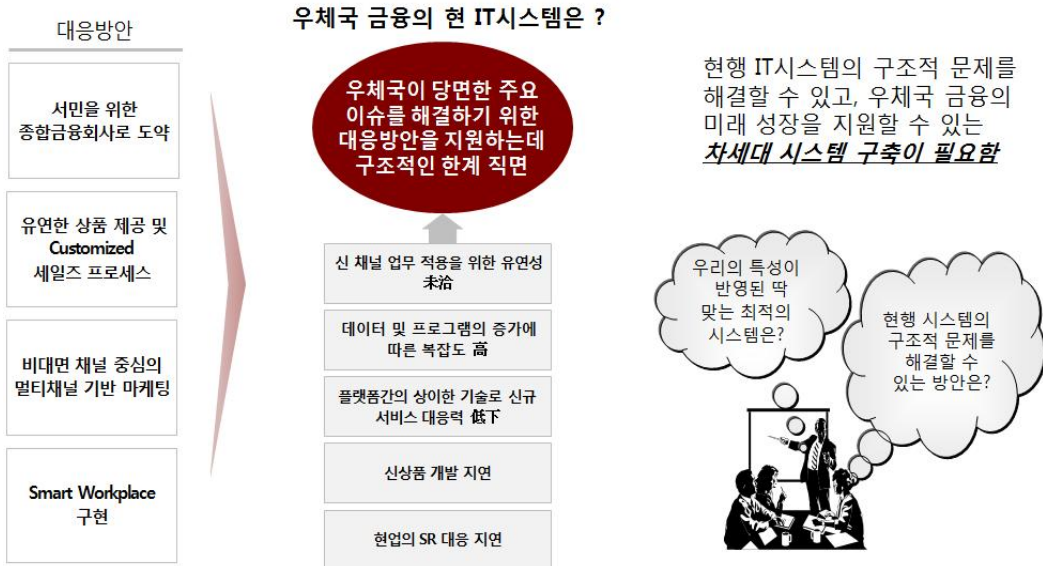
또한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중은행 및 보험의 ICT 환경에 비해 우체국금융의 ICT는 [그림 5]와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것으로 판단되며 우체국금융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시스템 도입의 준비와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 금융 ICT의 진화 로드맵



(그림 6)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성



따라서 우체국금융은 [그림 6]과 같이 우체국금융이 당면한 이슈사항을 해결하고 현행 IC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체국금융의 미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Ⅲ. 시중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례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채널과 스마트금융이 이슈를 지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금융 ICT 분야의 또 다른 키워드로 ‘포스트 차세대시스템’이 꼽힌다. 우리은행, 교보생명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오는 2018년에 가동을 목표로 2기 차세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국내 금융권이 ‘포스트 차세대’(Post Next Generation)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간제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 논의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포스트 차세대시스템’은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표 1>과 같이 지난 2005년을 전후로 몇 년간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간제 혁신화를 ‘(1차) 차세대시스템’으로 부른다. 금융권에선 1차 차세대시스템 이후에 진행한 대규모의 IT혁신 프로젝트를 ‘포스트 차세대’로 정의한다.

금융권은 차세대시스템 사용연한을 대략 10년~12년 정도로 본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차세대시스템은 2015년~2018년을 전후로 막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020년대를 겨냥한 전산시스템 체계를 ‘2기 차세대시스템’ 또는 ‘포스트 차세대시스템’으로 부른다.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명칭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표 1〉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향

구분	1기(차세대시스템)	2기(포스트 차세대)
구축	2005~2010	2015~2020
구현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용량 처리를 위한 IT 인프라의 안정성 및 업무의 확장성</li> <li>- 프로덕트 팩토리(Product Factory, 상품 개발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분석과 마케팅 최적화</li> <li>-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유연한 대응</li> </ul>

2005년~2010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 지난 1차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은 하드웨어 아키텍처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화에 성공했다. 주전산시스템 환경은 유닉스 기반의 오픈 시스템으로 전환됐으며, 24×365와 같은 무중단 금융서비스가 실현되었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의 속도를 대폭 증강시킨 프로덕트 팩토리(Product Factory)의 활성화는 지금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서비스 경쟁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통합단말 시스템과 MCA(Multi Channel Architecture)의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포스트 차세대시스템’을 견인하고 있는 곳은 은행권이며 금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동향관련 주사업자, 구축기간, 예산 등을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은행별 차세대 시스템 구축 동향<sup>2)</sup>

민간 금융회사 차세대 프로젝트 동향(은행)



\* 주요 민간 금융회사는 IT 경쟁력 확보와 신기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대부분 2003~2014년에 차세대를 이미 진행했으며,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2004년 이후 2회 수행함(1차에 Mainframe 사용)

우리은행은 2018년 2월까지 유닉스 기반의 차세대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추진 예산은 약 3,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9월, 'WINS'로 명명된 메인프레임 기반의 차세대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으며 2018년에 예정대로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14년 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다.

KDB산업은행도 현재 포스트 차세대시스템 구현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이 컨설팅은 사업비만 약 160억 원이 집행된 정도로 메머드급이다. 산업은행은 기존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와의 물리적 통합이 결정된 이후 ICT부문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컨설팅 후 진행될 본 사업의 경우 시스템개발 기간은 24개월, 투입금액은 약 2,000억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금융기관 구축 동향은 참고문헌의 발표 시기와 본 원고의 작성 시기 차이로 인해 현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KB국민은행은 2기 차세대시스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해 볼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핀테크 등 향후 은행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원하는 고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다.

#### IV.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전략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목표는 [그림 8]과 같이 최신 ICT 기술 접목 및 새로운 모델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고 무중단/무장애가 확보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체국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8) 우체국금융 차세대 시스템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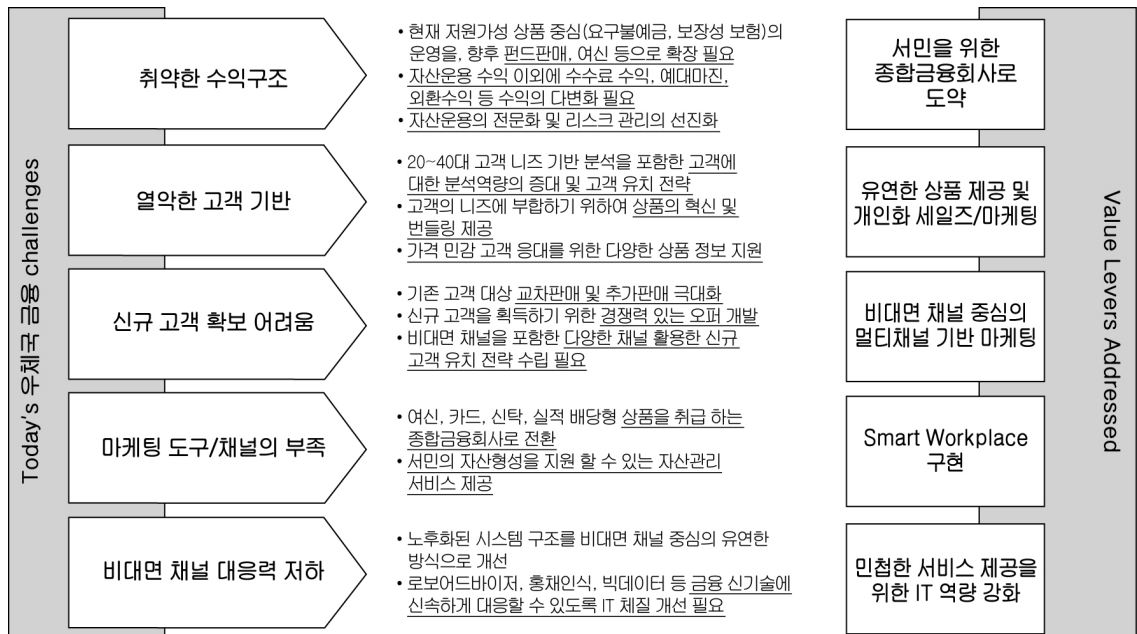


ICT 자원의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금융시대의 본격 개화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ICT 기술과 결합한 금융 실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노

후화된 인프라 및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선진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하여 24×365 금융 서비스를 실현하여 대량의 고객정보와 거래정보를 최신의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환경 등을 조성하여 모바일 중심은행, 복합점포, 금융거점 우체국 등 종합 금융기관으로 우체국금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9]와 같이 우체국금융 차세대 시스템은 취약한 수익구조, 열악한 고객 기반, 마케팅 채널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ICT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고, 유연한 상품 제공 및 개인화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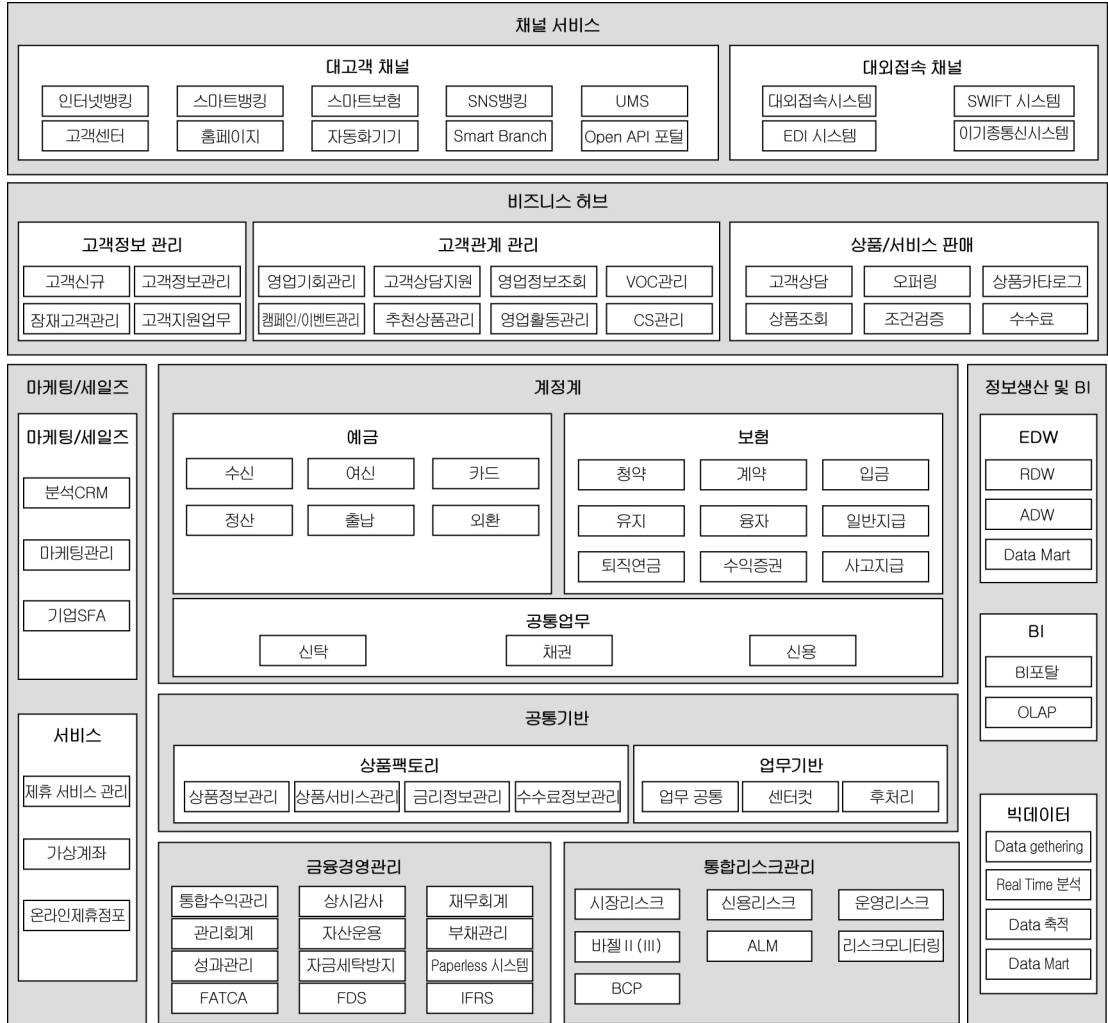
[그림 9]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배경



기존 예금·보험 외에 여신, 카드 등 종합금융 수준의 금융업무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간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체국금융 단위시스템 구성 예시(To-Be)는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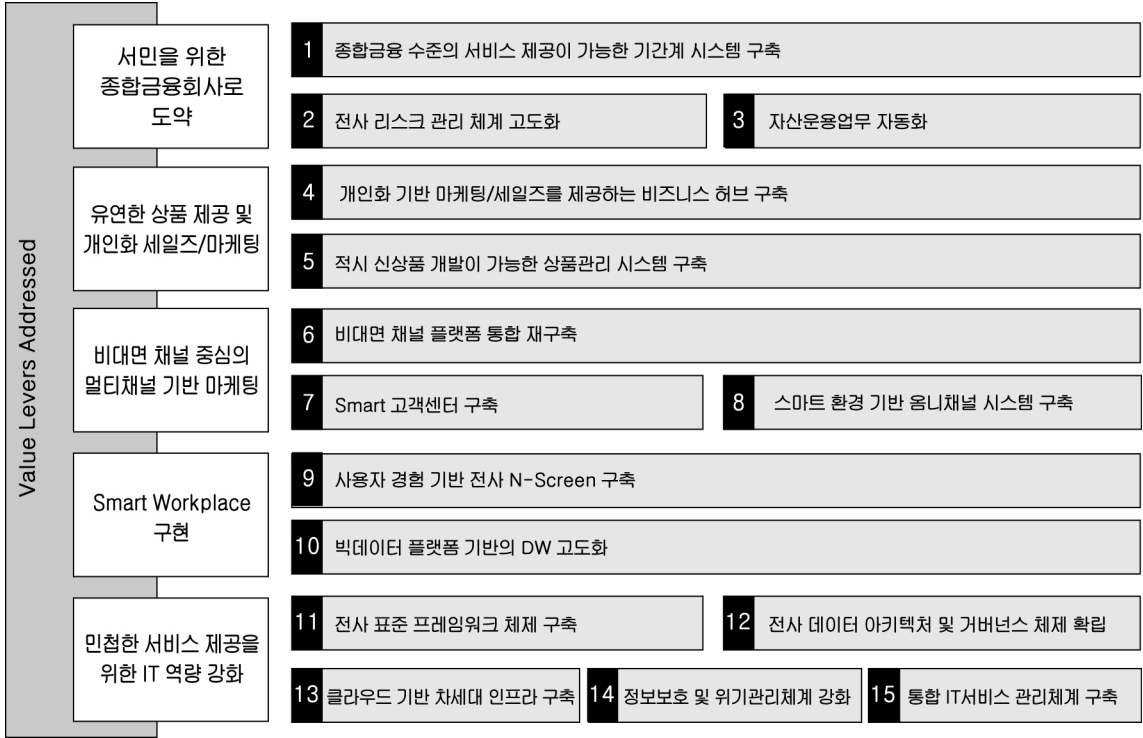


(그림 10) 우체국금융 단위시스템 구성 예시(To-Be)



종합금융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체국금융 차세대 시스템의 추진과제는 기간계 시스템 구축, 비대면 채널 플랫폼 재구축 등 15개 과제로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추진 과제 예시



## V. 결론

우체국금융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체국금융은 우선 ICT 인프라 고도화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통합 등을 통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실현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 시킬 수 있으며,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성 모델 개발 기반제공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금융 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확장성, 유연성, 효율성 높은 미래지향적 시스템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응용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통합 구성하는 사업으로 금융권의 ICT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세대 시스템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고 구축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낸 이후에는 차세대 구축요건의 정의 과정을 통해 차세대 추진 모멘텀을 가속화하여 전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업 사용자와 고객 입장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요건을 찾고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아키텍처 혁신 요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발 담당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전사 차원의 변화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사세대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2016. 11.  
 (주) 크로스넷, 우체국금융 구조 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2016. 9.  
 한영회계법인, Financial Services Briefing, 2015. 5.  
 IDG, 2017 IT 전망 보고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198171>  
<http://www.etnews.com/20160104000345>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102172739](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102172739)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3136>